

보도일시

2025.5.25.(일)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및 국민의힘 주진우·박성훈·나경원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주진우, 박성훈, 나경원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 했다고 한다.”며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상인들 속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은 분노했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거북섬을 꼽았다.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박성훈 의원 또한 지난 5월 25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거북섬이 곳곳이 텅 빈 유령섬이 되었다’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 결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한다는 뽐뽐함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요 예측도 없이 오직 ‘빨리빨리’만 외치다 국민의 삶을 파괴한 것”,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세장에서 당당히 자랑하는 이재명 후보의 후안무치함은 도를 넘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기만과 우롱을 멈추고,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중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유세 중 발언문은 지난 5월 24일 오후 6시 경에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당의 대통령후보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 고 자랑하니]라고 기재되어 있던 자신의 페이스북 허위 게시글을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 고 자랑하니]로 교묘히 수정하면서도 자신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처음 게시한 허위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건잡을 수 없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준석, 주진우, 박성훈, 나경원을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하며, 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끝>